

구 분		
열람·서명자	동물복지위원회	성명 함태성 (서명)
	동물복지위원회	성명 최미금 (서명)
확 인 자	동물보호과장	성명 이미숙
작 성 자	동물보호과 수의6급	성명 성호경

# 2024년 제1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2024. 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 2024년 제1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4. 3. 13(수) 10:00~11:3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회의실
- ◆ 참 여 : 12명
  - 당연직 : 이수연(부위원장)
  - 위촉직 : 함태성(위원장), 유주연, 이봉희, 장은혜, 신동현, 최양규, 최미금, 전인범, 이태무, 전진경, 이형주
- ◆ 안 건 : 동물공존도시 서울 2024년 시행계획 및 동물보호법 등 개정에 따른 현안

## □ 주요 발언내용

### [안건 1 : 동물 공존도시 서울 2024년 시행계획]

#### <000위원>

- 우선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서울시 동물복지계획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동물보호과>

- 우리 부서에서는 그간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 관련 교육이나 지원 등 프로그램적인 정책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여러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그러한 지원 정책만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등 반려동물 기반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 작년 11월 동대문에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가 신규 개관하였고, 앞으로 강동구에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모관까지 추가 조성해서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폭넓게 펼칠 수 있는 기반과 인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000위원〉

-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신 위원님 중에 000위원님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모관 위치가 서울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동물보호과〉

- 우리 시에서 먼저 고민했던 것은 반려동물 추모관이었습니다. 서울시내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없고 새로 조성을 하기에 서울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지역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테마파크의 경우에도 다양한 시설을 수용할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확보가 어려웠는데 연천군이 협력해주어 추모관과 함께 테마파크까지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협력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동차로 서울 북부권에서 연천까지 약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나 향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시간 내로 단축되어 교통적으로도 서울시민이 이용하기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000위원〉

- 요새 반려동물 캠핑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에는 캠핑장이 부족해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 위치적으로 서울시민분들이 1~2시간 이동해서 테마파크 이용하는 것은 시설만 잘 조성이 된다면 무리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000위원〉

- 다른 서면으로 기타 의견을 제출해주신 위원님 중에 000위원님께서 유사시 반려동물 철수 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 〈동물보호과〉

- 반려동물 재난대피 계획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반려동물 재난대피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치구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마련하고, 대응조직을 구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자치구가 지정을 못한 상황이라 앞으로 더 많은 자치구가 대피계획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000위원〉

- 서면의견 중에 000위원님께서 동물보호 민관합동감시 관련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이 단속권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동물보호과〉

- 현행 법제도에서는 명예동물보호관이 단속 권한이 없어 동물보호 지도감시나 홍보 위주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명예동물보호관들이 제한된 권한 안에서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과 같이 동행해 활동을 한다던가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장에서 동물보호 정보 제공이나 홍보 활동을 하시며 동물보호 복지정책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이 안되어 있는 자치구는 신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안건 2 : 동물보호법 등 개정에 따른 현안]

### 〈000위원〉

- 맹견기질평가 및 허가제도에 대해서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초기에 혼선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측면들은 기준을 정해서 진행해야 시민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 〈동물보호과〉

- 우리 부서에서도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준비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림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여 평가과정에 있을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나 법적 요건의 취약점, 개선이 필요한 점들은 시범운영 기간에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제도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000위원〉

- 개물림 등 사고치는 개들의 경우, 보호자들이 제대로 된 돌봄 교육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사고건의 경우 교육이나 사육허가에 보호자 측면을 더욱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 <000위원>

- 사육포기 인수제도의 경우 인수조건을 꼼꼼히 따져 동물유기 등 악용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 □ 주요 검토의견

### [안건 1 : 동물 공존도시 서울 2024년 시행계획]

구분	제안의견
1.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위원 : 반려동물 사회화, 돌봄교육을 위한 교육장소 및 유기동물 입양시설 필요. 추모관 방문자들을 위한 펫로스 증후군 극복 상담 프로그램 운영 필요.</li> <li>▶ B 위원 : 테마파크 내 미용시설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용률 저조예상, 사고발생 위험). 시설 규모가 큰 만큼 주변 지역내 동물유기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에 신경써야 할 것.</li> <li>▶ D 위원 : 사업목적은 공감하지만, 서울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로 변경 필요.</li> <li>▶ E 위원 : 평일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조성.</li> <li>▶ F 위원 : 경기도내 테마파크보다 유실유기동물을 관리하는 시설환경이나 동물복지 수준이 높은 동물보호센터의 추가 건립이 필요한 상황임.</li> </ul>
2. 권역별 동물복지지원센터 확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 위원 : 권역별 확대와 활성화 논의 필요.</li> <li>▶ F 위원 : 적극 추진하여, 입양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성이 있음</li> </ul>
3. 반려견놀이터 운영·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위원 :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운영,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li> <li>▶ D 위원 : 확충 뿐만 아니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li> <li>▶ E 위원 : 서울시 내 도보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모두 조성 필요.</li> </ul>
4. 동물복지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위원 : 수족관 방문교육은 야생동물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고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위원 : 반려동물 시민학교와 자치구 반려동물 교육지원 내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내용의 일관성 필요. 훈련사마다 교육자료마다 교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합교본을 만드는 방식 고려.</li> <li>▶ E 위원 : 찾아가는 학교 밖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함.</li> <li>▶ F 위원 : 반려동물 시민학교 교육과정에 동물입양을 결정하기 전 숙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및 책임 인식 교육이 필요하고 중성화수술 필요성도 홍보 필요함.</li> </ul>
5. 자치구 반려동물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 위원 : 지속적인 지원으로 반려동물 교육 인식개선이 정착되어야 함.</li> </ul>
6. 돌봄기관 연계 동물보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 위원 : 모든 어린이가 연1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확대 필요.</li> </ul>
7.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위원 : 중성화 수술지원을 필수진료로 하고 지원액을 늘려 중성화를 유도해야함. 위탁보호의 경우 보호비 지원 사유를 구체적으로 하여 부적절한 위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li> <li>▶ B 위원 : 매우 좋은 정책으로 판단됨.</li> <li>▶ E 위원 : 공공의료센터를 고려해야 함.</li> </ul>
8. 동물보호·반려동물 문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 위원 : 행사 추진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li> <li>▶ E 위원 : 전 자치구로 확대되어야 함.</li> <li>▶ F 위원 : 서울 동물보호의날 기념행사 내용이 동물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 가치를 알린다는 취지와 부합해야 함.</li> </ul>
9. 동물유기 예방 및 구조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위원 : 휴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유기동물 등 보호자 인계가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인수체계 마련.</li> <li>▶ E 위원 :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을 더 늘리고, 동물 유기·학대는 관련 수사가 필요함.</li> <li>▶ F 위원 : 응급치료의 대상은 입양희망자 유무뿐 아니라 얼마나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지가 대상 결정 기준에 들어가야 할 것.</li> </ul>
10. 유기동물 입양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위원 : 서울시 ‘안락사제로 도시’ 추진 계획 수립 및 공표.</li> <li>▶ B 위원 : 유기동물 입양문화 홍보캠페인 내용에 신종펫샵 업체의 유사 입양과 유기동물 입양을 구분하고 잘못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포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 위원 : 지속적인 지원 필요.</li> <li>▶ F 위원 :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동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치구별 입양지원 시설 설치는 확대 되어야함. 입양비 지원과 함께 입양동물의 중성화수술 의무화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 있음. 유기동물 입양 홍보 캠페인에 비품종견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한 내용이나 온라인 홍보가 포함되면 좋을 것.</li> </ul>
11. 동물보호 민관합동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위원 : 명예동물보호관 업무에 ‘방치동물’ 사육실태에 대한 조사 점검, 지도계획과 가정 내 고양이 불법번식 판매 적발 활동 추가 필요.</li> <li>▶ B 위원 : 단속권이 없는 상황에서 명예동물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의문.</li> <li>▶ E 위원 : 동물보호활동을 전문적, 체계화해야함.</li> </ul>
12. 길고양이 보호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 위원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위원 : 비건 메뉴 지원 식당 지도 마련해 홍보. (서울시 공공기관 비건 메뉴 병행 제공)</li> <li>▶ C 위원 : 유사시 반려동물 대피 계획수립.</li> <li>▶ E 위원 : 명예동물보호관을 활용하여 자치구내 동물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들 점검 필요.</li> </ul>

## [안건 2 : 동물보호법 등 개정에 따른 현안]

구분	자문의견
1. 맹견기질평가 및 허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위원 : 맹견사육 신청 사전요건에 산책 등 동반 외출 시 바디캠 착용 의무화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듯.</li> <li>▶ F 위원 :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이 과학적, 객관적이고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서울시 차원의 의견 개진이 필요함. 시행초기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음.</li> </ul>
2.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위원 : 사육포기 대상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li> <li>▶ E 위원 : 사육포기자는 더이상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제도 필요.</li> </ul>

	▶F 위원 : 사육포기동물 인수 신청자는 기간을 정해 입양 등 제약을 두는 방안 검토 필요
3.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의료 지원	▶A 위원 : 입양지원단체 확대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입양캠페인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E 위원 : 서울시수의사회와 협업을 통한 지원 필요.
4. 개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에 따른 추진사항	▶A 위원 : 개고기 취급 업소의 전업 지원을 위한 캠페인 전개, 촉진 필요. ▶C 위원 : 기존 사육견에 대한 입양 추진. ▶F 위원 : 시민 대상 홍보 등 민간단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